

인도 피지인의 정착과 이주과정

settlement and migration process of Indo-Fijians in Fiji*

조정규(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지리학박사, jjk3467@hanmail.net)

1. 서론

피지인구는 840,201명(2004년 말 추정)으로 피지인은 456,207명(54.3%), 인도인 320,659명(38.2%) 기타 63,335명(7.5%)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지인구에서 인도인이 38.2%로 나타나고 있으나 1986년 센서스에서 전체인구의 48.7%로 피지인의 46.0%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966년 센서스에서는 인도인이 50.5%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피지에서 인도인의 비중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1987년과 2000년의 두 번의 피지인 중심의 쿠데타로 많은 인도인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말 현재 38.2%까지 비율이 낮아졌다.

피지에 인도인이 정착하게 된 배경은 1874년 영국에 자진 복속된 피지의 영국 제국주의 세력은 피지 원주민 사회를 근대 상업과 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노동력을 멀리 인도로부터 데려 왔다. 1879년 490명의 인도인 계약노동자가 피지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시작된 피지에서 계약노동제는 1916년 폐지될 때까지 약 6만6백40명의 인도인을 피지로 불러 들였다. 인도 현지의 노동력 구인 사업체에 의한 갑언이설에 속아 5년을 계약조건으로 피지에 온 인도인 계약노동자들은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였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노동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럽인 농장주의 강한 회유와 당시 열악했던 인도의 경제현실 때문에 약 60%의 인도인은 피지에 남아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의 피지에서의 삶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계약노동자로 피지로 건너온 인도인들이 현재까지 피지의 각 지역에 정착과 이주의 과정을 피지의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기간은 1911년부터 1996년까지 피지의 센서스가 이루어졌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6년 이후의 자료는 Fiji Tourism and Migration Report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과정에서 통계자료의 지역구분이 조사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전후를 비교 설명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로 현지조사는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4-072-BM3053)

2. 본론

피지에서 인도인은 1881년 남자 388명, 여자 200명 총 588명, 1891년 7,468명, 1901년 17,105명, 1911년에 40,28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도인은 초기에는 피지 최대의 섬인 Vita Levu의 동남부에 있는 현 수도인 Suva 주변에 정착하였다. 피지의 기후는 크게 두 개로 분류되는데 습윤기후와 건조기후로 나뉘는데, 사탕수수는 강력한 잡초제거와 양호한 배수 체계를 요구하므로 습윤한 조건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 비록 초기의 재식농업이 습윤 지대에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사탕수수는 지금 섬의 서쪽에서 성장하고 있고, Suva와 Navua 주위에 살고 있는 휘지 인도인들은 벼와 다른 적합한 대안 작물로 전환했다.

표 1. 피지내 인도인 인구변화

	1881	1891	1911	1921	1936	1946	1956	1966	1976	1986	1996	2004
남	388	4,998	26,073	37,015	48,246	64,988	88,359	122,632	147,194	175,829	171,796	-
여	200	2,470	14,213	23,619	36,756	55,426	81,044	118,328	145,702	172,875	167,022	-
합	588	7,468	40,286	60,634	85,002	120,414	169,403	240,960	292,896	348,704	338,818	320,659

1911년 인도인은 rewa 18.4%, Macuata 16.8%, Ba 15.5% 순으로, 건조지역에 약 60%정도 분포하고 있다. 1921년에는 Macuata와 Ba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순위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사탕수수 재배가 활발히 전개된 지역이다. 1936년에도 Mathuata와 Mba 지역이 역시 인도인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6년에는 Mba지역이 38.9%로 단연 인도인이 집중된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1956년에도 1946년과 마찬가지로 Ba 38.9%, Mathuata 12.9%로 두 지역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피지내 인도인의 지역집중은 그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1에서 1986년에 인구가 가장 많고 그 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 피지인의 쿠데타로 인도인들의 해외이민이 급증한 결과이다.

3. 결론

첫째, 인도인의 피지 정착은 1879년에서 1916년 사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노동자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수도 Suva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나 그 후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서부 지역인 Ba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도시가 발달하면서 인도인도 도시지역으로 이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시로의 이주는 대부분 도시 주변지역에서 그 도시로 이주한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1987년과 2000년 두 번의 쿠데타로 인도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면서 해외로 이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약 2,000정도에서 그 후는 약 5,000명 정도로 2000년 쿠데타이후는 5,000명이 넘는 인도인이 해외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문직, 사무관리직, 기술직 등 고급인력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로 이주하였다.